

사회

“야간자율학습 규제 ... 고교생들 대거 몰려올 것”

갑자기 바빠진 광주 학원가

평일·주말반 시간표 재편성 ... 시설 독서실도 특수 기대

“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규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부모의 성화에 밀려서라도 학원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강사를 확충하는 등 우선 주말 수강생을 겨냥해 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강의시간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고교의 평일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밤 10시로 묶고, 주말·휴일의 경우 시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는 방침(광주일보 2월17일 1·6면)이 전해진 17일 광주지역 학원가는 ‘특수’를 기대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평일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단축돼 학습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주말에 학원을 찾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야간자율학습이 학생 자율선택제로 바뀔에 따라 학생들이 대거 학원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원특구’로 불리는 광주시 남구에 있는 학원들은 벌써부터 주요 과목 강의시간을 늘리는 등 수강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한 국어학원은 평일반을 축소하고, 주말반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근 수학학원은 원생 수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현재 5명 가량인 강사의 수를 당장은 3배 가량 늘릴 방침이다. 이 학원 수학 강사 김모(30)씨는 “3월부터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육까지 금지되는 상황이라 주말반을 중심으로 학원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늦은 밤까지 교습할 경우 버스 운행비도 만만치 않은데 주말에 학생들이 찾아와 준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구의 모 영어·수학학원 원장 정모(40)씨는 “교육청의 방안대로 시행되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정씨는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별 영향이 없겠지만 열의가 있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 봤다.

광주 동·서·북구지역 학원가도 이번 시교육청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수강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동구에서 만난 학원 관계자는 “이미 평일·주말반 시간표를 재편성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고교에서 학생들을 자율학습시간 등을 통해 묶어놓는 바람에 지역

학원들이 고전했지만, 이번 조치는 위축된 사교육 시장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역 사실 독서실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독서실 관계자 이모(34)씨는 “고교생의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실을 찾게 될 것”이라며 “긴장이 풀려 집에서 다시 자율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고교 1~2학년의 오전 8시 이전 등교를 금지하고, 평일 오후 9시를 넘겨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라 고교 3학년 역시 밤 10시를 넘길 수 없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 전면금지되고 3학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아파트 수백채 ‘돌려막기’ 50대 임대사업자 징역형

‘숨방망이 처벌’ 반발

임대아파트 수백채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해준 뒤 세입자들에게 강제 분양을 요구해 피해를 끼친 5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7일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임대하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임대업자 문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피해 세대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고, 대량부도 사태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규가 미비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문수대호주택’이라는 상호로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52명으로부터 총 202억1900만원을 받

아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적립금이나 충당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채 임차인의 보증금을 또다른 새 계약자로부터 받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대규모 미지급 사태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상기시킨다”며 “그동안 임대사기 사건들에 대해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숨방망이 처벌이 있었기에 약 100여명의 피해자들이 할거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민중노동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징역 12년이 구형된 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광주는 임대사업자들이 많고 임대분양사기도 많은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 엄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247) 김중두



‘JYJ’ 독자 활동 가능 법원, SM엔터 신청 기각

법원이 동방신기 출신인 그룹 ‘JYJ’ 세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지난해 4월 SM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08년 10월 당시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이들 3명이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지난해 4월 SM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어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대보름 음식 나눠먹다 화투 도박

○정월대보름을 맞아 음식을 나눠먹기 위해 모인

주부 4명이 새벽까지 화투판을 벌였다가 줄줄이 경찰서행.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송모(여·54)씨 등 40~50대 주부 4명은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광주시 남구 김모(48)씨의 집에서 판돈 225만원을 걸고 속칭 ‘고스름’을 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송씨 등은 정월대보름 전날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김씨의 집에 모였다가 심심풀이로 고스름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무료를 달래려고 화투를 친다는 게 지나쳤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불친절 택시운전사 퇴출

광주시, 4진 아웃제 ... 친절운전사는 해외시찰

광주에서 상습 불친절 택시운전사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상습 불친절 운전사가 근무하는 회사도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17일 “택시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택시운전사에 대해 1차 교육, 2·3차 과태료 부과, 4차 자격취소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친절 택시운전사가 소속된 사업체도 2·3차에는 과징금을, 4차 적발 시에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채찍’과 함께 모두 3억원을 들여 76개 택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불편신고, 공무원 모니터링, 시·구 합동 단속, 공제조합 사고접수 건수를 각 항목을 점수화해 우수사업체 10개사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친절 운전사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의 특전도 부여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운전사에게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운전자는 과감히 제재를 가해 퇴출 시킴으로써 교통사고율 1위의 오명과 친절하지 못하다는 광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함바 비리’ 장수만 방위사업청 상품권 대가성 수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여한섭)는 17일 낮 12시에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뒤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대우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이 상품권이 장

청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조사했으며 “서종욱 사장이 장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최근 ‘함바 비리’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총 1300만원여치의 상품권을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61)씨에게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희뉴스



“정월대보름 복조리 만들어요” 정월대보름을 맞아 17일 광주 북구 건국동 주민자치센터 직물공예체험학습장에서 어린이들이 직물 복조리와 짚신을 만들어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성취도평가 개인성적표 제공

7월 12일 실시 ... 전국 평균 등 상세하게

올해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본 초·중·고등학생은 자신의 성적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이틀에 걸쳐 시행된 평가는 올해부터 단축돼 7월12일 하루에 실시된

다. 올해부터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성적 통지표에는 4단계 성취 수준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비교한 개별학생의 위치정보, 교과영역별 상세정보도 들어간다.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대상 평가과목은 기존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축소된다. 중학교 3학년은 기존대로 5과목 모두 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버스파업 조합원 1명 구속·185명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주 지역 버스회사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구속하고 1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사무실 파손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합원 2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8일부터 각 버스회사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업무방해 175명, 폭행·상해 16명, 손괴 16명, 절도 1명, 기타 3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대체버스에 경찰관을 승차시키고, 버스 주요 회차지에 경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파업 70일을 넘긴 전주 시내버스 노사는 ‘노조 인성’ 문제에 대해 견해를 좁히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수뢰’ 김충식 전 해남군수

대법원, 징역 5년 원심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郡)에서 밭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역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0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3월 조영업체 A사가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형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3개 업체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희뉴스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남일